

화협동정

● 방재시험연구소 시설 확충

협회는 부설 방재시험연구소 부지내에 9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교육연수생 숙소의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44㎡ 규모의 건물로서 2인용 12실, 3인용 3실, 4인용 4실 등의 숙소와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어 방재기술 실무교육생들의 불편을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고압의 공기압을 발생시켜 고압 용기 및 용기 밸브 등의 누설 유무를 시험하는 과단압 시험장치와 각종 소화설비 부품의 압력손실에 따른 등가 길이를 측정하는 등가길이 시험장치를 새로이 도입, 설치 완료함으로써 각종 형식승인시험 등에 활용하게 됐다.

● EML 산정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협회는 손해보험회사의 석유화학 관련 물건의 인수 및 보유율 결정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인화성 위험물질을 취급·저장·제조하는 사업장의 위험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EML Version 2.0을 연구·개발·실용화했다.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시험기관 지정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케이블 연소방지재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의 구매 규격에서는 우수제품의 구입을 위해 케이블연소 방지재에 대한 수직불꽃시험, 산소지수, 냉열특성, 굴곡특성 등의 시험을 방재시험연구소

를 비롯한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것과 이들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초청 강연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월 20일 2층 연수실에서 영국의 A. E. A(원자력성) Technology의 화재 모델링 전문가인 Baley S. Kandola 박사를 초청, 터널에서의 화재 위험에 대한 모델링(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연기에 대한 위험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모델링)과 피난 모델링(A. E. A. Egress 피난 모델링 코드에 대한 세부 사항) 등 화재 모델링의 기술 동향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 제2·3기 방재전문인 수료

협회는 분야별 방재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재전문인 교육 과정을 마친 12명에 대해 '방재전문인 자격' 수여식을 가졌다.

협회가 실시하는 방재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연수교육·점검실습·세미나 참석·연구교육 등 2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친 후 전문 분야별로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제출, 예비 및 본심사를 통과해야만 방재전문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 본·지부 홍보전담 및 담당요원 교육

협회는 위험진단 및 방재기술 교육의 저변 확대와 기술 홍보를 통한 방재의식 함양을 위해 본·지부 홍보전담 및 담당요원 12명을 선정, 홍보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보험계 동정

● LG화재로 사망 변경

럭키화재해상보험(주)은 주총을 열고 지난 6월 1일부터 상호를 LG화재로 변경했다.

● 제일사 알기 쉬운 PL법 해설 출간

제일화재해상보험(주)내 일본보험연구회에서는 일본내에서 95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일 수출업체와 관련 기관들이 일본의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제조물 배상책임관련 분쟁 등에 대한 대응책을 돕기 위해 일본의 PL법과 기업의 안전대책을 실무적으로 풀이한 번역서를 출간했다.

PL(Product Liability)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 보험사 사회봉사활동 활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은 현장 체험으로 직업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점포장 특별연수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의 강남권 5개 지점장 등 점포장 87명이 참여, 서울 경기지역의 재활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과 경기도 지역의 농·목장 등을 방문, 하루동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삼성사 '교통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은 지난 5월 19일 주요 기업체 교통안전관리자 1백10여 명을 초청하여 제6회 교통안전관리 세미나를 본사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통안전관리 대책,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관리자의 역할, 자동차보험 관리, 사고처리와 보상 등에 대해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한국보험학회 세미나 개최

한국보험학회는 창립 3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8, 9 양일간 삼성생명 국제회의실에서 생존보 관계자 및 유관 관계인들을 초청, 산·학협동으로 창립기념 보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양대 조해균 교수의 '보험사업에 있어서의 내부 감사, 통제제도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専修大상학부 武田昌 교수의 '자동차손해 배상 책임보험 계약에 관한 직접 청구권 제고', 보험개발원 김승제 원장의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경쟁질서 확립방안', 충북대 장경환 교수의 '보험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등이 주제 발표되었다.

● 손보험회 글짓기·표어·포스터 현상 모집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통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범국민적 의식 개혁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글짓기·표어·포스터를 현상 공모한다.

◆공모내용: 교통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표어 및 포스터, 200자 원고 8매 이내의 교통사고 체험담이나 피해자의 생활 수기

◆공모 기간: 199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처: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소방계 동정

● 수난사고 합동훈련

지난 5월 18일 경기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수원시 소재 원천유원지에서 긴급구조·구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수난사고 합동 구조훈련이 열렸다.

이흥구 국무총리, 이해재 경기도지사 등 참관인사 20여 명과 시민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훈련은 유람선 화재 및 전복 사고시 인명구조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헬기 6대·구조차 2대·구급차 8대·구명보트 7대 등 각종 장비 56대와 소방관 1백42명·군부대 10명·지원출동 79명 등 2백64명이 참가하여 입체적인 구조·구난 공조체제를 다졌다.

● 스프링클러 설비 교육

서초소방서에서는 관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4월 4일 오후 3시 서초소방서 3층 강당에서 삼풍백화점 등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백55개소의 대표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투자 확대, 방화관리업무의 확인 감독 철저, 방화관리 종사원의 환경 개선과 지원, 입주자 또는 직원 관계자회의를 통한 소방훈련 및 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을 교육한데 이어 업무종사자에게는 자동식 소화설비의 자동화 유지, 오동작 방지, 방재 시스템에 대한 점검·정비능력의 배양 등을 강조했다.

● 소방호스 이동장구 신개발 품 시범

서울소방본부에서는 지난 4월 12일 도봉구 소재 소방학교 운동장에서 고지대 및 주택가 골목 등

소방도로가 협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호스를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소방호스 이동장구에 대한 시범경연대회를 가졌다. 이날 시범경연대회에서는 종로·성북·도봉소방서에서 개발한 소방호스 이동장구가 최우수 개발장구로 공동 선정되어 전소방서로 보급될 예정이다.

● 소방국에 구조구급과 신설 예정

대형 재난 사고시 긴급 재난대비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무부 소방국내에 구조·구급·소방통신 등 3개과로 구성되는 구조구급과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구조구급과에서는 대형 재난시 구조구난본부 설치 운영, 구조구난본부 설치 운영, 구조·구급업무 계획 및 대책에 관한 사항, 기술 연구 및 지도, 특수 재난 재해의 관리, 관련 법규의 제·개정, 특수 재난 재해의 소방활동 및 유관 기관 동원에 관한 사항, 유·무선 통신설비 설치 및 기술 지도, 소방전산 시설 설치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서울소방본부 구급교육 실시

서울소방본부는 지난 5월 9일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구급대원 3백44명을 대상으로 국소 해부학 및 심폐소생술, 복부·두부·척추손상 등의 응급처치 요령 등 전문 구급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7월부터는 구급차에 여자간호사가 탑승, 대민서비스를 높인다.